

발행인—鄭鎮勳
 편집인—이기용
 인쇄인—이일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차장—강철주
 기자—오에리 남진우 김지원
 디자인—윤정자 이은주

포토디렉터—주명덕
 사진—전혜경

업무·광고—양승표 최태원
 김윤희 홍성기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호 010041-31-2826477
 발행처—(제)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식

출판지널—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내 3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평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慎鏞廈 安秉永
 安輝潁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淑 李康淑 李瑞璫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元靛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元植 鄭鎮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鍾庫 韓彰震 韓勝憲 (가나다 순)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예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 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호 0100 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 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 등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 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현미경

‘기’자 돌림 책 제목, 어디까지 갈 것인가

「홀로서기」 「마주보기」 이후 급증... 30여종 헤아려

“홀로 선 다음 마주보았으니 이젠 셋이서 걸어가야 할 차례인가?” 작년도 출판가를 강타한 서정윤 시집 「홀로서기」(청하)에 이어 올해 케스트너의역시집 「마주보기」가 베스트셀러로 부상하자 출판계 사람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말을 주고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출판되는 창작물의 상당수가 ‘기’자 돌림으로 끝나는 것은 단순히 우연한 일치라기엔 너무도 작위적인 냄새가 짙다는데 문제가 있다.

서점에 가서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돌아서기」 「엽서쓰기」 「거듭

나기」 「다시나기」 「사람찾기」 「사랑쌓기」 「기다리기」 「숨쉬기」 「외줄타기」 「모여살기」 「껍질깨기」 「잠깨우기」 「멀리있기」 「사랑만들기」 「이삭줍기」 「물구나무서기」 등 30여종에 이른다. 최근에 올수록 수식이 보다 다채로와져서 「키 낮추기와 꿈높이기」 「번데기의 양심찾기」 「우리들의 사랑가꾸기」 「우리 둘이 서로보기」 등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다. 장르도 처음엔 시가 주종을 이루던 것이 요즘 들어선 소설, 수필, 번역서에도 맹렬한 기세로 전파되고 있다.

이처럼 ‘기’라는 명사형 어미가 제목으로 애용되는 것은 이런 유형의 말을 애용하는 세대, 즉 중고등학생층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집을 베스트셀러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이들 독서층은 80년대 들어와서 무시할 수 없는 고객으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판이 상업성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쏟아져 나오는 ‘기’자 돌림 책 제목은 확실히 정상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 책 내용과는 별 상관 없이

지나치게 시류에 영합하여 붙인 제목은 오히려 책 자체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홀로서기」 다음에 「마주보기」가 나온것은 애교로 봐줄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기’자 돌림의 제목이 범람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느낌”이라는 한 출판인의 지적은 새겨 들을 말이라고 생각된다.

— 남진우 기자

독서퀴즈

이번 호부터 독서퀴즈를 국내외 명작 및 작가들을 비롯해 책과 얽힌 갖가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꾸밈니다. 다음 문제들의 정답을 11월2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 내)으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32호(12월 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동아출판사에서 펴낸 「동아프라임 국어사전」(정가 85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당첨자

김재숙(동대문구 답십리동 498-5) 양동희(노원구 상계2동 주공아파트 716동 1201호)

고현미(계주시 오라2동 2222-18) 손순홍(전북 이리시 남중동1가 16-0-66 번지 한겨레신문 동아리 지국)

이상미(강원 동해시 송정동 14-7 초원주택 9호 이용우씨택)

문제 1

우리는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을 가리켜 ‘베스트셀러’라고 일컫고 있다. ‘베스트셀러’라는 말은 다음 중 무엇에서 처음으로 생긴 말인가? 1895년에 미국에서 생긴 말이다.

1. 책(서적)
2. 음반(레코드 판)
3. 운동화

문제 2

도서관, 도서실 등은 책을 빌려서 읽을 수 있는 고마운 장소이다. 영어로는 ‘라이브러리(Library)’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생긴 것. 그렇다면 라틴어의 무엇을 뜻하는 말이 도서관의 어원이 됐을까?

1. 나무의 속껍질(內皮)
2. 고요한 숲(森林)
3. 책상과 의자

문제 3

스탕달의 소설 중 대표작은 「赤과 黑」이다. 그런데 이 소설 제목인 赤과 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1. 연인과 연적
2. 군인과 승려
3. 위험과 복수

문제 4

그가 1812년에 시집 「차일드 해럴드의 巡禮」를 발표하고 유명해지자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 내가 유명해진 것을 알았다.” 이 말을 한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은 다음 중 누구인가?

1. 워즈워드
2. 존 키츠
3. 바이런

문제 5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소설의 주인공들의 운명을 트럼프 점괘로 정하는 등 점치기를 몹시 좋아했다. 그는 어느 날 점을 치더니 딸인 타치야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런 안됐구나. 카추샤하고 네 플뤼도프는 결혼시킬 수 없다는 점괘가 나왔어.”

이런 주인공이 나오는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은 무엇인가?

1. 전쟁과 평화
2. 부활
3. 안나 까레니나

—출제·홍윤기

제28호 독서피즐 정답

「독서피즐」에 응모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8호(10월 1일자) 피즐에 응답해 온 엽서는 136통, 이중 정답은 84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 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 드립니다

1. 숨은 글 찾기

황 등 불 등 등 는 에 을 가 을 에 는
 금 옛 것 가 불 등 을 안 것 옛 불 등
 는 값 까 고 을 함 다 고 나 새 것 다
 하 이 이 있 장 음 식 키 치 것 친 은
 을 여 학 시 이 먼 지 을 은 고 을 지
 글 문 있 익 은 은 퍼 것 책 다 음 키
 읽 읽 이 있 다 것 새 읽 을 읽 씬 음
 는 다 기 다 좋 옛 는 것 는 책 리 는
 값 이 없 에 지 은 값 먹 는 것 어 는
 은 황 있 고 문 것 을 매 밥 을 은 에
 값 금 값 학 옛 밥 문 은 길 다 없 을
 은 황 이 있 고 학 매 길 수 밥 가

- 황금은 값이 있고 학문은 값을 매길 수 없다(黃金有價學問無價)
- 밥을 먹는 것은 시정함을 고치고 책을 읽는 것은 어리석음을 고친다(食飯務讀書療愚)
- 옛 것은 지키니 새것을 안다(溫故而知新)
- 가을에는 등불을 가까이 하여 글 읽기에 좋다(燈火可親)

2. 글자 짜맞추기

월	인	천	강	지	곡				
훈	몽	자	회	동	국	정	운		
		두	시	언	해	석	보	상	절
				용	비	어	천	가	
언	문	지	홍	무	정	운			
월	인	석	보						